이름 없는 실재, 그 진심의 파동이 닿길

미술단체 파도 4회 단체전
이룸갤러리 한라일보점서

정재훈 작 '등을 따라 걷는 길'.

푸른 하늘 아래 야트막한 오름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발길 닿은 대로 오름길을 따라 걸으면 이내 그곳에 닿을 것만 같다. 멀리서 보면 티 없이 아름다운 이 풍경의 한편에 놓이는 짙은 그림자. 꼭 사람을 닮았다. 3일 시작되는 미술단체 '파도'의 단체전에서 만날 수 있는 정재훈 작가의 '등을 따라 걷는 길'이다.

정 작가는 3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첩에서 이 풍경을 눈에 담았다고 했다. 제주 동쪽 어딘가의 오름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아름다움, 그 너머였다. 아버지처럼 아픈 누군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풍경이 마음속 불안마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거라는 데 생각이 닿았다. 그럼에도 결코 희망을 놓치는 않았다.

정 작가는 "그림자는 우리 마음의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이라며 "그런 불안을 안고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름다운 여정처럼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다. "희망을 찾아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찾으러 다니는" 삶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전시에는 정 작가를 포함한 파도 회원 12명이 참여한다. 강혜지 김보미 김원재 김진영 박민서 박현준 오지우 이주성 임다훈 장도경 정재훈 황준용 등이다. 김산 작가는 초대 작가에 이름을 올렸다. 파도 회원인 문휘빈 김근석 씨가 기획을 맡았다. 파도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와 서울 등에서 작업을 잇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이다. 회화 작가, 조각가 등이 함께하고 있다.

전시는 '파도: Log.4 : untitle(언타이틀)'이란 제목처럼 그들의 네 번째 항해 일지다. 파도라는 하나의 현상 아래에 무수한 물방울이 솟구치듯 작가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궤적을 작품으로 내어놓는다.

파도는 전시를 찾는 이들이 "하나의 결론을 찾거나 하나의 해석으로 작품을 서둘러 묶지 않기를" 바란다. 문휘빈 기획자는 전시 서문을 통해 "이름표를 떼어낸 사물들이 뿜어내는 날것의 진동을 그저 느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비록 이름은 없으나 분명히 실재하는 진심의 파동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또 다른 물결을 일으키기를" 기다리면서다.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 시작되는 다음 물결이 있다는 것을 '이름 없는' 전시로 이야기한다.

전시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된다. 장소는 이룸 갤러리 한라일보점(제주시 서사로 154 1층)이며, 전시 오프닝은 2일 오후 5시. 김지은기자

제주의 결, 예술로 짓다
제주민예총 이달 2~6일
도민 창작 프로젝트 결과전

(사)제주민예총이 2026 예술로 제주탐닉 '제주의 결, 예술로 짓다' 아티스트북 창작 프로젝트의 결과를 전시한다. 이달 2~6일 창작오픈스튜디오 뜰(제주시 관덕로 6길 11 2층)에서다.

프로젝트에는 일반 도민들이 참여했다. 두 명의 예술가와 함께 제주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강의와 현장 탐방에 나섰다. 이후 그곳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 등을 사진, 문장, 스케치로 기록했다. 모두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전시에는 절반인 15명이 참여한다. 마지막까지 창작 과정을 붙든 이들이다.

제주민예총은 "이번 전시가 익숙했던 제주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제주를 새롭게 떠올려 보길 기대했다. 오픈식은 2일 오후 6시이며, 관람은 무료. 김지은기자

초가을 물들이는 음악빛

한라윈드 앙상블 4일
아트센터서 팝스콘서트

피아니스트 김기경
5일 슈타인홀서 연주회

가을의 길목에 음악이 흐른다. 9월에 막 들어선 지금, 다채로운 음악 빛이 이 계절을 반긴다. 신나게 혹은 감미롭게.

▶한라윈드앙상블 '팝스콘서트'=시민밴드 한라윈드앙상블(사진)은 오는 4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스물여섯 번째 팝스콘서트를 연다. '컬러스 오브 뮤직(Colors of Music)! 음악, 다채로운 색을 입히다'라는 부제처럼 다양한 빛깔의 곡을 준비했다. 팝과 고전 관악곡에 더해 볼레로와 같은 춤곡 등이다. 판소리를 각색해 듣기 쉽고 재미를 더하는 우리 국악곡 '어사출두'(춘향가)도 관객을 만난다.

한라윈드앙상블은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윈드오케스트라다. 30년 넘게 국내외 무대에 서고 있다. 팝스콘서트는 해마다 여는 정기연주회나 다름없다.

연주 무대는 모두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선 알프레드 리드(A.Reed)가 편곡한 '더 뮤직 맨'(The Music Man), 케네스 램플(Kenneth Lampl)의 '콘체스트 1'(Conquest 1), 야곱 드 한(Jacob de Haan)의 '몬테로시'(Monterosi) 등 부드러우면서도 장대한 볼륨을 느낄 수 있는 곡이 선보인다. 2부에서는 춤곡 볼레로와 판소리, 전통 고전 곡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등이 이어진다. 김재용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정애선 명창이 협연한다.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일반 5000원, 학생 1000원이다.

▶피아니스트 김기경 연주회= 오는 5일 제주시 봉개동 슈타인홀에선 피아니스트 김기경의 연주회가 열린다. 김기경은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연주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로 넘어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원, 서울대학교 음악박사과정에서 배움을 이었다. 이태리 발티돈 국제피아노콩쿠르 수상(2011), 베를린 스타인웨이 프라이즈 우승(2012) 등의 이력도 있다.

제주 공연은 프랑스 음악으로 채워진다. 빛의 정원부터 고요의 시간, 삶과 사랑 등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연주회는 서문로교회가 주최하고 이데동문화가 후원한다. 공연은 당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예정됐다. 무료입장.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 기림한판 <515>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야으덜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씬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옌 흔 디서 '밥 2'에 대흔 시 이왁을 흐여보켜."

밥 2

지친 흐를이 서산곡대기에 눅곡
어스름이 나 눈으로 기여 들민
나도 서산 ᄀ차이 강
눈을 곰앙 그 흐를 흐를 다 몸에 새겻다
나 몸을 끗언 이디ᄁ장 오젠흐난
얼매나 한 흐를덜이
이슥흔 밤 비크레깃질에서 죽어가신고

밥 촞기 따우
비슥흔 맥락의 나 욕망덜은 벤홈이 읏다
나 소년광 청년 경흐고 중년
모도가 무소유의 역리를 한결ᄀ이 부정흐멍
이끄장 왓다
벤흔 건 허영헤진 머리꺼럭광
무소유가 나 양지를 느려긋는 복수의 칼그뭇

망각의 강을 건너기 전ᄁ장
흐를이라는 시간의 요물덜이
불변의 정답인 밥이 뒈영
나 뱃소곱이서
꿈광 건사진 미래를 질룰 것이다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계속>

제주어 풀이

***ᄀ차이 강:** 다가가
***비크레깃질:** 비탈길에서 ***전ᄁ장:** 전까지
***끗언 이디ᄁ장:** 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매나 한 흐를덜이:** 얼마나 많은 하루들이
***벤홈이 읏다:** 변함이 없다
***오젠흐난:** 오느라
***밥이 뒈영:** 밥이 되어